

애경산업 '2080 퓨어 핑크솔트 포켓 마우스워시' 내놔

애경산업이 '2080 퓨어 핑크솔트 포켓 마우스워시'를 내놓았다. 스틱 형태의 구강청결제로,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구강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천연 암염이라 불리며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함유했다. 플라크 및 구취 제거 등 구강 내 청결 유지에 도움을 주며, 싱그럽고 부드러운 마일드 민트향이 가글 후 기분 좋은 향을 남긴다.



볼보, 브랜드 최초 쿠페형 순수 전기 SUV 'C40 리차지' 출시



C40 리차지는 볼보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순수 전기차이자 쿠페형 SUV다. 제로백 4.7초의 고성능 듀얼 전기모터와 사륜구동 시스템, OTA 15년 무상, 첨단 안전 시스템 등을 통해 볼보자동차가 제시하는 새로운 스마트 라이프를 선보인다.

사진제공 | 볼보자동차코리아

독일보다 2200만원 ↓ ...가성비·성능 다 잡았다

테슬라와 아이오닉 중심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수입 완성차 브랜드의 전동화 전략 발표와 순수 전기차 출시가 속속 이어지면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약 10여 종 이상의 신형 전기차 출시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최근 수입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브랜드 최초 쿠페형 순수 전기 SUV 모델인 C40 리차지를 선보이며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다. C40 리차지는 볼보자동차 전동화 전략의 핵심 모델로 출시 5일 만에 1500대가 완판되며 볼보 브랜드의 가치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C40 리차지 출시

C40 리차지의 국내 공식 출시 가격은 미국(7285만 원)과 독일(8640만 원)보다 각각 890만 원, 2200만 원 낮은 6391만 원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이처럼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파격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볼보자동차가 진출한 시장 중 한국 시장이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 10년간 국내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볼보자동차가 진출한 글로벌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판매 대수로 살펴보면 2012년 1768대에서 2021년 1만 5053대로 약 751% 증가했다. 이차

美·獨보다 낮은 가격 책정...한국시장의 높은 성장률 덕분 '트윈 얼티메이트' 트림, 최고급 안전사양·옵션 기본 탑재 첨단 주행보조시스템·'볼보 카스 앱'으로 안전·편의성 강화



C40 리차지에는 300억 원을 투자해 TMAP 모빌리티와 공동 개발한 'TMAP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왼쪽)가 적용됐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소재로 완성한 실내 공간.

사진제공 |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자동차 브랜드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뤄낸 덕분에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글로벌 시장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C40 리차지를 국내에 출시하게 됐다. 국내에 출시된 C40 리차지 모델은 '트윈 얼티메이트' 트림이다. ▲총 408 마력을 자랑하는 듀얼 전기 모터 ▲사륜구동(AWD) 시스템 ▲20인치 타이어 휠 ▲커넥티드 기반 디지털 패키지 ▲하만 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360도 카메라 ▲파일럿 어시스트 등 최고급 안전 사양과 옵션을 기본으로 갖춘 최상위 트림이다.

이는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약 1000만 원 이상의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이라는 것이 볼보

자동차코리아의 설명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반영한 가격으로 비교하면 C40 리차지의 주요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 EQA 250(AMG Package Plus), 제네시스 GV60(스탠다드 AWD 20인치) 대비 약 350만 원에서 560만 원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 기본 탑재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라는 브랜드 철학에 따라 C40 리차지는 최신의 센서 플랫폼이 탑재된 ADAS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량 간 안전거리와 차선을 유지하는 파일럿 어시스트, 보행자 및 큰 동물 등을 인지해 긴급 제동 및 조향을 지원해 사고를 방지하는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 후진 시 충돌 위험이 감지되

면 자동 제동을 지원하는 리어 액티브 브레이크(RAB), 도로 이탈 완화 기능(Run-off Mitigation),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Oncoming Lane Mitigation) 등을 기본 제공한다.

최근 C40 리차지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충돌 테스트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을 제공하는 차량에만 부여하는 가장 높은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에 선정됐다.

C40 리차지에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기능 추가된 커넥티드 기반 디지털 패키지도 기본 적용되어 있다. 전기차 전용 알고리즘이 탑재된 TMAP 오토 및 음성 인식을 통해 ▲목적지 검색 시 예상 도착 배터리 잔량 표시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 범위 조회 ▲가까운 충전소 자동 추천 및 경로 추가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차량과 운전자의 연결성 및 편의성을 강화한 '볼보 카스 앱(Volvo Cars app)'도 편의성을 높여주는 요소다. 차량 잠금 및 해제, 쾌적한 주행을 위한 실내 온도 사전 설정, 차량 배터리 상태에 따른 주행거리 확인, 차량 충전 상태 확인, 충전 일정 예약 기능 등도 사용할 수 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OTA)도 15년 간 무상 지원과 언제나 최신 기능을 갖춘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다. 볼보는 연내에 전기차에서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한 인카 페이먼트 시스템(ICP) 및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메디힐, 신제품 선크림 2종 CJ올리브영 론칭



엘앤피코스메틱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이 신제품 선크림 2종(사진)을 CJ올리브영에 론칭했다. '티트리 수딩 선크림'과 '세뽀 밸런싱 선크림'으로 구성했다. '티트리 수딩 선크림'은 메디힐 독점 성분인 티

트리 카밍 바이옴을 함유해 민감한 피부에 산뜻한 진정을 선사한다. '세뽀 밸런싱 선크림'은 피부에 보송하게 밀착돼 피부를 케어하고 자연스러운 톤업을 돕는다. 두 제품 모두 자외선 차단 지수 테스트를 완료했고 피부 자극 지수 제로 판정을 받았다. 또 해양 생태계를 해치는 유해 성분을 제외한 100% Reef-세이프 오션 프렌들리 인증을 받았다. 공기를 잉크 및 FSC 인증 패키지를 적용한 '클린 뷰티' 제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CJ올리브영 론칭 기념으로 '티트리 클렌징폼 50ml'를 추가 증정하는 CJ올리브영 단독 한정 기획구성 상품을 40% 할인가인 1만4900원에 판매한다.



휴니버스, 천안충무병원 등과 P-HIS 구축 계약

고대의료원 의료기술지주 자회사인 의료IT 기업 휴니버스는 최근 천안충무병원, 아산충무병원과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구축계약(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대의료원이 2017년부터 5년간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 솔루션 P-HIS를 처음으로 민간병원에 구축하는 계약이다. 천안충무병원은 중부권 내 최대 종합병원이고, 아산충무병원은 아산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휴니버스 P-HIS 시스템은 12월부터 천안충무병원과 아산충무병원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래본병원, 코로나 후유증 회복 클리닉 개설 환자 맞춤 진료 위해 각 분과별 전문의 협진

서울 잠실 미래본병원(사진)은 신속항원검사 시스템을 갖춘 코로나19 후유증 회복 클리닉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클리닉에서는 격리해제 후에도 코로나19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중점 치료한다. 확진 후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후유증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겪는 후유증은 종류와 증세가 다양하다.

기침,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부터 무력감, 어지럼증 등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엔 기억력 감퇴나 후각, 미각 이상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미래본병원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은 환자 개인별 증상에 맞는 맞춤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과별 전문가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협진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형석 대표원장은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 격리해제 이후에도 이전과 다른 컨디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의들이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푸조, 3008·5008 SUV 가솔린 모델 선보여

새로운 고효율 터보차저 장착해 연료소비·탄소 저감...안전성 ↑

푸조가 1.2 퓨어테크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3008과 5008 SUV를 공식 출시한다.

한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푸조의 3기통 1.2 퓨어테크 엔진은 배기량을 낮추는 대신 새로운 고효율 터보차저를 장착해 크기와 무게는 줄이고 연소의 최적화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저감하고, 운전의 즐거움과 안전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

3008 및 5008 SUV에 장착된 1.2 퓨어테크 가솔린 엔진은 EAT 8단 자동변속기와 조합해 최고출력 131마력, 최대토크 23.5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복합효율은 각각 12.2km/L, 12.1km/L다. 최대 토크가 일상 영역에서 발휘되어 도심 주행이 많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안전 사양도 갖췄다. 3008과



1.2 퓨어테크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3008(왼쪽)과 5008 SUV.

사진제공 | 스텔란트스코리아

5008 SUV의 GT 및 GT 팩 트림에는 제한 속도 인식 및 경장 속도 표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탐지할 수 있는 최신 어드밴스드 비상 제동 시스템(AEBBS) 등이 추가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ADA

S)이 장착되어 있다.

가격은 푸조 3008 SUV 1.2 퓨어테크 알튀르 4350만 원, GT 4620만 원, GT 팩 4920만 원. 5008 SUV 1.2 퓨어테크 알튀르는 4770만 원, GT 5070만 원, GT 팩 5270만 원이다.

원성열 기자